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18년 9월 14일 현지시간 12시 55분에
필리핀 퀘존 시티에 있는 성 루가병원에서
우리 **CRISTINA Sr. MARIA GESUALDA JUSTO** 수녀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87세로 54년간 수도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 현양 축일을 지내는 날에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시편 선창자와 함께
“주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크리스티나 수녀님을 영원한 혼인잔치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필리핀 첫 수녀를 통해서 이루셨던 놀라운 업적에 감사
드립니다.

크리스티나는 7남매중 셋째로 1931년 3월 13일 마닐라에서 태어났고 태어난지 6일만에
마닐라의 병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49년에 l'Istituto Magistrale Philippines Normal
College에서 학업을 마치고 1953년 ~1954년에는 이사벨 대학 교리교사 양성학교에 다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1958년 성바오로수도회의 잡지 Home life 의 광고에서 우리수도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빠스또렐라에 대한 관심을 어떤 바오로인, Sorrows 의 Our Lady 의 본당사제에게
드러냈고, 일정기간 성소여정을 갖은 후 1961년 8월 22일 Melbourne 의 Carlton 에 있는
공동체로 입회했습니다. 1962년 12월 착복하였고, 1963년 9월 2일 수련을 시작 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Albano Laziale 모원으로 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수녀는 Albano Laziale -의 모원에서
1964년 9월 3일 Maria Gesualda 수녀라는 이름으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첫 서원 후 1965년 5월
15일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정기간 모원에 머물렀는데, 필리핀에 있는 Cavite- Imus 에
우리의 현존을 준비하는 세 수녀들 중 한 명 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수녀는 자신의 첫 서원 청원서에 “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장차 내게 맡겨질 성모님의 사명인 사도직의 직무를 열정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과 나의 성화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충실할 것입니다.”고 썼습니다.

크리스티나 수녀는 양성장들에게 수도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관대하게 내어주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올바르고 섬세하며, 정교하고 솔직하고 근면하며, 사려 깊고 온순하고 조용하고 희생할 수 있고 사려 깊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내적 삶이 깊은 사람입니다.

54 년간의 수도생활 동안 크리스티나 수녀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사랑과 헌신으로 성취합니다. 권위의 봉사로서 2 회기의 지부장(1986-1994), 위임구와 지부의 평의원, 수년간의 이무스 초등학교장(1967-1976, 1983-1986, 1998-2001), 관구 경제담당(1998-2017). 3 년간(1995-1998)은 Parañaque 공동체에서 사목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6 차총회 준비위원 멤버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의 수녀님들은 크리스티나 수녀님을 수녀님들, 제자들, 교사들, 학부모와 평신도들 모두의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확고하지만 부드럽고 섬세한 수녀님의 현존은 수녀님들이 자유를 느끼며 자신들의 여정을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수녀님은 사목 카리스마를 사랑하였고 그것을 충실히 살고, 우리 창립자의 가르침들을 모든 세대의 필리핀 빠스또렐레에게 전달했습니다. 빠스또렐레로서의 수녀님의 상징은 단순하고 필수적이며, 절도 있고, 투명하며 확고한 그리고 타인들을 향해 관대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을 청하지 않는 유머감이 좋은 수녀님으로 남습니다.

크리스티나 수녀님은 온전히 내어준 삶을 평온함 가운데 조용하게 운명합니다. 병자성사를 받은 뒤 심오하고 섬세하게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서로 사랑 하십시오”라는 복음말씀을 남기면서 고별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수녀님은 8 월 31 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지내면서 작은 보살핌 하나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고 이렇게 자신의 *Miserere* 와 *Magnificat* 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티나 수녀님의 성소와 생애에 대해 선한목자께 감사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과 이 특별한 시험의 시기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필리핀 수녀님들의 여정과 모든 우리 수도가족을 위하여 수녀님의 전구에 의탁합니다.

아민따 사르미엔토 뿌엔테스 수녀
총 원 장

2018 년 9 월 14 일, 보고타
성 십자가 현양 축일